

지자체들 국비확보 총력... 제주, 대응 필요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 상대 초당적 협력 요청 부산·인천·울산 등 정당 달라도 지역 발전 협치

지자체들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에 대한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비 확보에 각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나서는 가운데 제주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3개월 남짓 남았지만 지자체

와 지역 정치인들이 일찌감치 힘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정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확보 논의를 위해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도 같은 날 인천시-인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천시

역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로 초당적 인 협력 및 지원 요청에 나섰다.

앞서 같은 당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달 25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울산국회의원협의회를 만나 국비 확보와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들 지자체 모두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소속 정당이 다르더라도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치에 나서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제주도의 경우 내년도 국비 사업 신청액이 전년 대비 증가해 더욱 적극적인 절충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이다.

올해 제주도의 2022년도 국비사업 신청액은 총 2조 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3118억원(18.3%) 증가했으며, 국비 확보 목표액은 1조 5500억원으로 2021년 1조 4839억원 대비 4.5% 증가했다. 특히 2022년 국비 신규사업 신청 현황은 2356억원(163건)으로 전년 대비 64.5%나 증가했다.

아울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 제주4·3 희생자 위자료의 정부 예산안 반영 등에도 도와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문인들에서

마음은 더 가까이

재난은 전 인류를 위기로 내몰았지만 늘 약자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위험은 약한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코로나라는 재난의 피해는 인간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사회”란 책의 저자는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 부자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원을 축적할 기회는 더 많은 것이다. 위험이 계급을 통해 당시는 혼자자 아니라 는 안정감을 제공해야 사회적 통합과 결속력이 생기는 것이다.

거리두기 실물경제 치명타 정부, 지원 등 안정감 제공

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하나 장기간 지속되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정신장애인에겐 지원된 도움도 유익하다. 특히 감염의 전파를 막아 노인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노인들끼리 그나마 어울리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폐쇄로 이어졌고, 노인을 존중하던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킴으로써 사실상 노인들 의 고통을 심화시켰다. 이들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의 개발, 공공 와이파이나 온라인 단말기의 보급, 소규모 대면 모임과 지속적 사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만이 아니다. 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물경제에 치명타를 안긴다. 방역을 위해 모든 게 멈춰버린 이 상황에서 경제위기는 자영업자의 출도산을 초래하고 40~50대 가장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이들은 모든 사회적 관계가 일과 직장을 중심으로 짜여 있기에, 파산하거나 실직하면 사회에서 고립된다. 또한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의 성별 취약성에도 침투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실업과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더욱 위험한 상태에 놓인다. 재택근무가 늘고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양육과 가사 노동 또한 여성들에게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제부터 정부는 이런 점들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위기 상황의 관리 대상자 발굴과 긴급 재정 지원, 그리고 적절한 면담과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인생에서 위기에 몰렸을 때 따뜻한 지원을 통해 당시는 혼자자 아니라 는 안정감을 제공해야 사회적 통합과 결속력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새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물리적 거리는 두되 비대면 사회적 접촉은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마음을 더 가까이 두자.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기본을 유지해야 한다. 비대면이라도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과 교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전화로 소식을 전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서로 공감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취약계층과 중년 가장,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불안에 함몰되기보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담론을 생성하고 정서적 위안을 서로 제공하며 문화적 성숙을 보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한국 사회의 당연한 과제라 하겠다. K방역 성공과 더불어 총체적인 국가적 역량과 최신 디지털 기술을 총망라해 정신건강 분야에서 새로운 심리방역 위기관리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 위기가 백신 개발로 인해 희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듯 하다. 재난은 고통이 따르지만 세월이 흘러 재건이 이뤄지고 아픔이 치유되며 마침내 회복하게 된다. 코로나 이후의 성장한 대한민국을 맞이하자.

“성추행 등 군대 비위 분노... 민간 참여해 병영 문화 개선”

추행 등 군대 비위 사건 발생 군 계급, 신분 인식 문제 원인 '군사법원법 개정' 처리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날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무 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 내 잇단 비위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면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지우고하를 막론한 업정환 수사·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병영문화의 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번 일이 개별 사건이 아닌 잘못된 병영문화에서 비롯됐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장교는 장교의 역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으므로 그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며 “거기서 문제

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군의 계급에 따른 역할은 분명히 하되, 왜곡된 병영문화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장교의 식판을 사병이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 않았느냐”며 “장교와 사병의 역할이 신분으로 구분되는 문제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은 머지않은 시점에 민간이 참여하는 관련 기구를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오늘은 원칙적인 입장 표명만 있었을 뿐 기구 책임자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으로,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즉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군 사법제도 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액무료 (80% 취업률 달성)
전기실무자 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 취업처 다수 확보 ★

대상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 재직자

교육기간
7월 개강 예정 - 7개월 과정
모집 근시일 마감

교육시간
09:00 ~ 16:00, 1일 6시간 (주 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배관, 배선, 약전, 소방 등

문의
064-749-3434

(주)제원직업전문학교
jejujw.com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신성리 1-1 (신성초등학교 옆) * 본교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그랜드보청기

그랜드보청기 확장이전 파격할인!!
구매고객 20만원 상당 녹음 선착순 증정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기능

“전문청능사” 어플리케이션 소리 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상충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검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와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회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CGV 광안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안사거리)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